

월간 총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교회

'76 3월호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받기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결재를 받은 후에 정성껏 순종하여 개인과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교회와 우리나라가 복을 받으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관이며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가까이서는 바로 우리의 가슴속이 전쟁터입니다. 욕심과 양심, 교만과 겸손, 조심과 방종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크케는 이 지구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결하고 있는 곳입니다. 신령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악마의 졸도들과의 전쟁터입니다.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만 자유·재산·행복이 보존되고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걸어 놓고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신령한 싸움에 당신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악마의 속임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고 돌아가야만 할 나그네인 우리는 하나님께로 주소를 정하고 하나님의 법도로 우리의 발걸음의 지침을 삼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천국을 건설하는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바로의 궁주의 아들이라는 존귀한 이름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코 애굽에 접령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격의 주소를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생하기를 자취 하였읍니다. 이처럼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의 헛된 것과 맞서 싸우며 의인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순종은 옷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순종은 아랫사람이 옷사람의 한없는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순종은 겸손한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진실한 생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 창 12:1”고 명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본토를 떠나라는 말은 구슬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미신에 속한 구슬은 민족 발전의 암이요, 야만인을 만드는 근원이며, 신앙 생활을 저해하는 악마의 그물입니다. 한 사람의 무덤을 위해 80만명의 땅을 차지하는 악습은 죽은 사람의 뼈다귀 놀음에 살아 있는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 결과를 안겨 줄 뿐입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사촌끼리 싸운다는 뜻입니까? 당파싸움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사회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당파싸움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는 불의한 사업을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불의한 우상장사로 재산을 모았다

는 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집에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에게 손해되며 후손들에게 멸망을 안겨주는 사업은 던져버립니다. 영혼에 지옥불을 붙이는 불의한 수입은 끊어버리고 오직 깨끗하고 정당한 사업에 맘을 쏟읍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명령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세례 받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세례는 곧 하늘나라의 시민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려면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려면 세례를 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천지만물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바른 계획을 세워 바른 청구서를 낸 대로 받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며 책임감을 느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주면 감사할 줄 모르거니와 원망이 자라며 계획이 없으므로 방종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당한 목적과 방법으로 기도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가면서도 남편·자녀·친척 등은 지옥에 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으로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바치는 일에도 순종합니다. 수입의 1/10을 하나님께 바치고, 1/10은 부모님을 위해, 1/10은 자녀를 위해 바치면 결코 돈을 꾸러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거울에 항상 자신을 비춰봅니다.

외모로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 거울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 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 볼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함부로 덤비는 경솔한 사람이라는 것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게으름뱅이로 알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펴기 전에,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 봅시다. 남의 실수나 찾아내려 애쓰며 남의 눈에 띄기만 조사하기 전에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 봅시다. 자신은 하루에 성경 한장 보지 않는 부모·교사·생도가 어떻게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명령대로 행할 뿐만이 아니라 항상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 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이 이 땅 위에서부터 부르시는 날 「나 천당간다 잘 믿다가 오너라」하고 도리어 위로의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월간 충현

3월의 행사

- 7/정기 제직회·남전도회 임원회·권사회 임원회
14/남전도회 월례회·권사회 월례회
여전도회 임원회
21/교육위원회·여전도회 월례회·재정위원회
28/구역권람회·주교 각부 교사월례회
30/정기당회

3월호 차례

- 〈설교〉 하나님의 백성/김창인 목사2
〈영신도를 위한 신학해설〉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이해③/선성종 목사...6
·인간이란 무엇인가(일간론)/이정웅.....7
〈해외선교〉 현재 단려진 일본 선교의 전망
/홍충만 목사11
〈행사결과보고〉 1976년 겨울 계절학교..... 8
〈여론 조사〉 성전건축사업 참여방법..... 4
〈캠페인〉 교회 물자를 아껴 쓰시 다.....12
〈4월 구역공과〉 사도신경14
〈구역장 노트②〉 구역요원교육/백성룡 목사...15
〈간증문〉 영원히 충현의 식구인가 봅니다10
〈컬럼〉 전리가 무엇이나?/오태웅13
〈찬송가해설③〉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새 358.....13
〈책소개〉 두려움에서 신앙으로.....9
〈교회 뉴우스〉16
〈기자석·편집후기〉18
〈화보〉 사진으로 보는 이모 저모19

□ 방송전도 □ 김창인 목사 방송설교 : 아세아
방송(1570)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권 두 언

성전건축에 빠짐없이 참여하자

이스라엘은 파사의 고레스왕에 의하여 바벨론에서 해방되자, 제일먼저 시도한 것이 성전건축이었다. 솔로몬에 의하여 지어진 그 아름다운 옛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스룹바벨에 의하여 시작된 이 성전은 주전516—5경에 완성되었는데 특별히 학개 선지자는 성전건축의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1장에서 기록하고 있다.

에스라 3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을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하였으나 나중에는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학 1:2”고 하면서 지연했다. 바로 이 때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 빨리 성전이 건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명하게 된 것이다(학 1:3—4).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형편에 놓인 상심다. 영동지역에 땅을 샀을 때 우리는 성전짓기를 얼마나 열망하였던가! 그런데 지금은 그 열심이 사라진 듯한 인상이며, 바로 이러한 때에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의 성전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vision) 제시에 우리는 긴급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는다.

학개는 성전건축 방법에 대해 세가지를 지적한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학 1:8」, 즉 먼저 성산에 올라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마음의 성전 없는 외형적 성전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나무를 가져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재료를 모아야 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부동산의 십일조를 바치는 일이다. 세번째는 실제로 건축에 착수하는 일이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할 일이므로 우리의 할 일은 뒤에서 기도로 도우면 되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할 때에 「그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학 1:8」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충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이스라엘이 성전건축을 지연함으로 한 재(旱災)를 받은 것 같은(학 1:10—11) 재난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현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도 빠짐 없이 성전건축에 적극 참여하기를 호소한다.

(주간)

○ 성전건축문제가 이야기되어 온 것은 벌써 10여년 전부터입니다. 그러나 아직껏 우리의 이 꿈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날로 더해가는 장소문제로 교회의 모든 활동에 대해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총현의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꼭 같은 책임이 있으며 꼭 같이 힘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건축문제의 시급성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또 성전건축사업에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설문을 통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 설 문 /

《이양우 / 중등부 교사》

① 학개선지자와 같이 성전건축을 위해 매일 믿음으로 기도한다. 온전한 십일조를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다.

② 가정예배 때마다 온 식구가 함께 기도한다. 재산의 십일조를 드린다.

③ 영동 교회 대지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운동을 벌이고 해결 전담위원을 두어 당국과 설득력 있는 면담에 힘쓰며 진정서를 각 요로에 보내며 또 기독교 정치인들에게 호소한다. 신축 교회설계도를 완성하여 「투시도」를 본당과 주교 각부 예배실에 눈에 잘 띄도록 게시하고 주보에 인쇄하여 온 성도들이 먼저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 성전건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모든 교인들이 경청케 한다.

《김희수 / 고등부》

① 우리 성도 한사람 한사람의 자세가 성전건축에 가장 큰 힘을 미칠 것 같다. 다른 사람에 의해 성전건축을 격정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자신의 확고한 뜻을 세워 최선을 다해 돕는다.

② 일주일 중 하루라도 성전건축을 위한 가정예배를 드리며 우선 가족들의 뜻부터 한가함으로 묶는다.

③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교회 성도 전체가 하나로 단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교회 전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교회의 모든 사업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절약하여 성전건축에 도움을 삼도록 한다.

《백옥인 집사 / 영아부 부감》

① 기도하고 근검절약하여 건축헌금을 모은다.

② 가정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한다.

③ 모든 집회 때마다 성전건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고 또 모든 교인이 성전건축헌금 하도록 권한다.

《마동훈 / 중등부》

① 무엇보다도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하는 바가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인 이상 눈물의 기도만 끊이지 않는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버려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또한 저희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크게 도울 수 없지만 기도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② 물론 기도가 좋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가정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기도소리가 가정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③ 첫째는 기도운동이요 둘째는 모든 성도가 완전한 헌신의 생활을 하도록 하며 세째는 모든 성도가 교회나 사회에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경수 선생 / 남전도회 회원》

① 먼저 기도가 있어야 하고 두번째는 참여의식이고 세번째는 최대한의 건축헌금을 작성하여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② 가정예배에서 늘 이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에서 저금통을 마련하여 「성전건축헌금」으로 적립하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③ 건축재정으로 자원헌출을 확보할 것이며 긴급하지 않은 경상비 지출은 억제하여 성전건축금으로 돌려 쓰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형윤 / 중등부》

①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돈을 절약하여 성전건축헌금으로 드리며 성전건축헌금 작성을 어른만 하시도록 하지 말고 영아부에서부터 할아버지까지 작성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② 성전건축을 위한 가정예배보기운동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또 집의 현관에 「성전건축헌금통」을 달아놓고 의출하였다 돌아올 때마다 절약한 용돈을 넣어 1원, 10원을 정성껏 모아 매월 하나님께 바치도록 합니다.

③ 어른들이 먼저 성전건축을 위해 항상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학생들도 인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 설교 때도 이야기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며 「가정예배보기운동」과 「성전건축헌금합 달기운동」 등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자 / 해외선교부》

① 필요한 건축재료를 상세히 열거해 놓은 후 그 중에서 극히 적은것 하나라도 담당한다(예: 벽돌 1장, 나무 한토막, 못 하나 등등).

② 첫째 성전건축에 동참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둘째 성전건축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등을 상기하며 온 가족식구가 모여 이 일에 최대의 협조가 되는 방법을 모색한다.

③ 모든 문서·포스터·광고 등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갖게 하며 각 지회에서는 성전건축을 위한 특별집회와 철야기도회 등을 갖는다.

- ① 성전건축을 위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② 성전건축을 위해 가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③ 성전건축을 위해 각 지회나 또는 교회 전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전건축 참여방법

《최명실 / 고등부》

① 먼저 충현의 한 성도로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라고 본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결과 모든 시험도 이길 수 있었으며 느브갓네살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함으로 총리대신까지 되었다. 이처럼 기도의 힘이란 무한히 큰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열심히 기도할 때 충현의 성전이 하루라도 빨리 완성될 것을 믿는다.

② 성전건축은 곧 우리집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성전건축을 위해 우리 가정은 무엇을 할 수 있나 깊이 생각한다.

③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느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를 지으려고 계획했다. 모든 교인들은 건축현금을 낼 수 있었지만 한 소년은 집이 몹시 가난하여 건축현금을 낼 수 없었다. 이 소년은 자기도 성전건축하는 일을 돕고는 싶고 돈은 없고하여 생각다 못해 벽돌 한장을 구해 현금대신에 드렸다고 한다. 과부의 동전 한알을 기뻐하심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의 벽돌을 그 누구의 현금보다도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는다. 이와 같이 온 교회가 먼저 성전건축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어보려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성호 / 초등부》

① 우선 모든 충현의 성도들이 성전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일이며 조금 허무하게 쓰는 돈을 조금씩 떼어 성전건축현금으로 낸다.

② 가정에서 성전건축을 위해 가정예배를 드리며 아버지나 어머니는 꼭 건축현금을 내도록 말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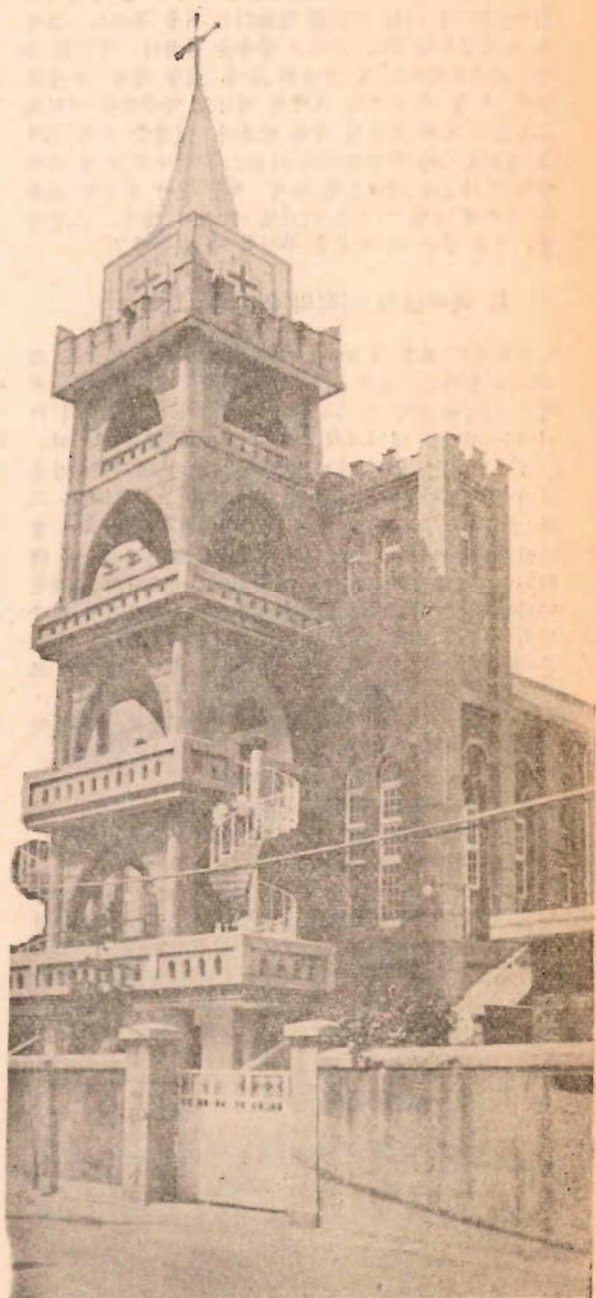
③ 모든 부에서 성전건축현금통을 따로 만들어 놓는다. 나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생각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충현의 어린이로서 이 문제에 대해 시간 나는데로 진심으로 기도하겠다.

《정금숙 / 초등부 교사》

① 개인의 시간·노력·물질 등 생활 전체의 십일조를 성전건축을 위해 바친다.

② 건축비용의 총액 가운데서 우리 가정이 부담할 수 있는 액수를 할당받아 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노력하면 꼭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대지가 확정되고 설계가 끝났다고 가정해서 생각해본 것임).

③ 각 지회별로 성전건축의 필요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지회별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이해 (3)

신 성 중 목사

<부목사·대학부 지도>

그런데 이런 이적은 현대에도 일어난다. 그것은 캐트린 쿨만(Kathryn Kuhlman)에 의하여 잘 증명되고 있다(그녀의 나는 기적을 믿는다면 책을 참조). 그녀는 기적집회와 TV,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6주간 밖에 더 살 수 없었던 스텔라 테너의 악성암을 기도로 고쳤으며 퇴역 군인인 캐리 립스가 전쟁중 입은 상처로 절름발이와 중풍환자가 되었으나 쿨만의 기적 집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목발 없이 걷는 등 신유의 은사에 의한 기적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이 현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5. 예수님의 이적의 의미와 그 기능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이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적은 현대 사이비종파에서 하듯 선전을 위한 인기작전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이적에는 적어도 몇가지의 의미와 기능이 있는 것이다.

첫째로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은 그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의 설교는 물론 그의 이적은 그가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두번째로 그의 이적은 그가 예언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심을 증명해준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이적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히브리서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님의 이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해준다.
- ② 그의 사랑과 자비심을 보여준다.
- ③ 신앙을 불러 일으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
- ④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표적(sign)이다.

그러면 이적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 12:28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심으로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임을 말씀하고 있다.

6. 예수님의 치유 방법

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위하여 처방을 쓰셨다는 귀절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은 침을 뱉어서 고치신 것인데 귀먹고 병어린 자에게 한번 그리고 소

경에게 두번 사용하셨다. 그런데 이 방법은 상징 이상의 것으로서 예수님의 침 속에는 그의 호흡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당시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서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익숙한 이 방법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의 말씀을 통해 고치셨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칼빈은 해석한다(칼빈주석 막 7:32 참조).

두번째 방법은 기름 사용인데 이것은 그의 제자들에게 의해서도 사용된 방법이다(막 6:13). 칼빈은 막 6:13 주석에서 기름을 “영적 은혜의 보이는 상징”이라고 했다. 즉 기름 그 자체에 어떤 신기한 능력이 있는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오며 기름은 다만 상징이라는 것이다.

세번째 방법은 안수하시는 일이다. 문둥이를 안수하셨고(마 8:3)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때에 안수하셨고(마 8:15) 소경의 눈을 안수하셨다(마 9:29) 또 귀머거리와 소경을 안수하셨다(막 7:33). 이런 예는 신약성경에 아주 많다. 사실 손이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의 신적 능력이 나가는 곳이며 사랑이 표현되는 도구였다. 따라서 이 방법이 오늘에도 유효하는 것은 당연하다.

네번째 방법은 말씀(the word)이다. 능력은 예수님의 호흡 속에 그리고 그의 손을 통하여 나타난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그의 능력은 나타났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전혀 희망이 없는 죄인들이 새 사람들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말미다. 그렇다면 말씀에 의하여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면 병자편에서 마음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배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심으로 믿음이 신유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씀하셨다.

두번째로 필요한 것은 병자의 기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질 수 없느니라”(막 9:29)고 하셨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당 그대대로 믿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끝으로 캐트린 쿨만이 고백한대로(나는 기적을 믿는다 p.250) 성령이 바로 병고침의 해답이 된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중에 권능은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이 권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며 이것은 오늘날 계속하여 일어난다. 초대교회 때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의 이적은 계시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그것을 성경과 동일시할 수 없고 다만 성경의 계시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이해>는 이번 호로 끝을 맺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이 정 응

(고등부교사 · 총신연구원)

영어로 인류학(Anthropology)이나 인간론(Anthropology)은 명칭이 같다. 그러나 이 명칭이 과학적으로 사용될 때는 인류의 기원, 인종의 발달, 언어의 발전, 문화의 발전, 종교의 발전을 말하지만, 신학적으로 사용될 때는 성경을 전제로 믿고,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서술하게 된다.

1. 사람의 기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창 1:26).

사람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낙원에 배치되었고 동산을 경리하며 땅을 정복하는 직무를 받았다. 그는 모든 것을 풍부하게 누리므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사람의 성질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동반자(同伴者)와 협조자(協助者)가 필요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의 독처(獨處)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다(창 2:18).

여기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란 말을 히브리 성경대로 직역하면 ‘그 남자의 짝으로서 그 남자를 위하여’라고 번역된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각종 동물들을 살피 이들을 짓게 하였으나 각종 동물들 중에는 아담의 짝이 될 만한 것이 없었다. 사람은 이성(理性)과 이해력(理解力)과 의지(意志)가 있다 그래서 언어와 법률과 과학과 예술과 도덕과 종교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동물은 언어도 법률도 과학도 예술도 도덕도 종교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동물은 아담의 협조자가 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인을 만들어 그의 배필로 주셨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창조로 인류의 혼인생활을 정하여 주셨다. 그들은 동거하며 세로사로 돕고 행복하게 살았다.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일부일처(一夫一妻)의 혼인원리를 볼 수 있다. 성경은 혼인의 존귀성과 신성(神聖)함을 가르친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살전 4:4)라고 하였다.

2. 사람의 타락

성서적 인간론은 첫째는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요, 둘째는 타락한 인간론이다. 현대과학은 인간의 타락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말하기를 인간의 구원은 교육을 개선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사회구조 교육만능을 부르짖는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받

달하지만 인간의 잔인성, 죄악성은 날마다 더 높아지고 있으니 이것은 무슨 연고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하고 했는데 그들은 이 말씀대로 되었다. 이것이 타락이다.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첫째가 전적부패(Total Depravity)인데 그 말은 ‘인류 전체가 죄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의미이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렘 17:9) ②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엢 2:3) ③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 3:10).

이상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범죄한 자들이다. 이것을 소위 「원죄」라고 부른다.

3. 범죄의 결과

사람의 타락은 여자가 주동적이거나 그 책임은 남자가 같이 져야 한다. 왜냐하면 아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동전의 내지 찬성을 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히브리 성경대로 직역하면 “그 여자와 함께 한 그녀의 남편에게도 주배”라고 번역된다(창 3:6하).

범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없고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제도가 생겼다. 뿐만 아니라,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했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수고와 고생이 더하였다. 필경은, 육신은 흠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것이 범죄의 결과이다.

4. 사람의 회복

범죄한 인류에게 기쁜소식 곧 복음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창 3:15).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믿음으로 회복되고 신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주) John Calvin: (1509.7.10生-1564.5.27死)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설교자, 목회자, 신학 교수, 저술가. 작품으로는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만 26세 때 저술했음.

동기 계절학교

—주일학교 I, II부—

- ... 우리교회 주일학교의 1976년도 동기 계절학교가 지난 1월 19일 개교한 유치부와...
- ...유년부의 「제13회 겨울 어린이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2월 26일 영아부의 「제1회...」
- ...겨울 어린이 성경학교」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 기간 동안에 모두 1,275명의 학생...
- ...과 220여명의 교사가 참가하였으며 특별히 영아부에서 어린이와 같은 기간에 실시한...
- ...학부모를 위한 특강시간에는 102명의 부모님들이 참가하기도 하였다. ...

□ 영 아 부

행사명 / 제1회 겨울 어린이성경학교

실시기간 / 1976년 2월 24일~26일

실시장소 / 영아부실

주 제 / 우리는 복음의 그릇

참가인원 / 학생 : 94명 교사 : 17명 학부모 : 102명 ※ 일평균출석

주요내용 / 「어린이를 위하여」 예배(설교—임승원 목사) · 새 노래공부 · 간식 · 만들기 · 동화 · 놀이 · 인형극 · 반별 찬송대회
〈학부모를 위하여〉 임상의학(아동위생)—강주심 영양관리—이길상

〈자체 평가〉

- 영아부 어린이들에게도 계절학교는 대단히 유익하고 필요하다.
- 부모들을 위한 특강 계획과 내용은 대단히 좋았다고 한다.
- 어린이와 학부모 시간을 분리하였으면 좋겠다.
- 강의내용은 주제에 좀더 잘 맞출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유 치 부

행사명 / 제13회 겨울 어린이성경학교

실시기간 / 1976년 1월 19일~21일

실시장소 / 유치부실

주 제 / 재림과 심판

참가인원 / 학생 : 96명 교사 : 29명 ※ 일평균출석
주요내용 / 예배(설교—김종택 목사) · 새 노래공부 · 간식 · 만들기 · 동화 · 반별찬송대회 · 영화

〈자체 평가〉

- 계획표대로 모두 잘 진행되었다.
- 순서담당 교사들이 모두 잘 진행했다.
- 준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좀 있었다.
- 시청각교재의 부족을 느낀다.

□ 유 년 부

행사명 / 제13회 겨울 어린이성경학교

실시기간 / 1976년 1월 19일~21일

실시장소 / 유년부실

주 제 / 재림과 심판

참가인원 / 학생 : 215명 교사 : 61명 ※ 일평균출석수
주요내용 / 예배(설교—이승근 전도사) · 성경공부 · 찬송공부 · 이야기교실 · 그림기대회 · 글짓기대회 · 노방전도 · 영화 · 특강

〈자체 평가〉

- 철야기도에 많은 교사가 참석하여 좋았다.
- 특강시간은 담당 교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효과가 컸다.
- 실시기간을 유·초등부 분리로 혼잡성을 피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어린이교본에 공과교재까지 있어서 좋았다.
- 날씨가 추워 어린이 출석에 지장이 있었다.
- 초등부 언니를 따라서 나오지 못하는 어린이는 혼자서 출석하기 힘들다.
- 기간은 3일보다 4일이 더 좋겠다.
- 저녁예배에 출석하는 교사에게 여유 있는 식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 특강은 학년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 성경말씀을 재미있게 듣는 1학년 어린이들.

□ 초 등 부

행사명/제13회 겨울 어린이성경학교

실시기간/1976년 1월 26일~29일

실시장소/초등부실

주 제/제림과 십탄

참가인원/학생: 270명 교사: 60명 ※ 일평균출석

주요내용/예배(설교—김태현 전도사)·저녁부흥회·

(오영호 목사)·성경공부·찬송공부·이야기교실

그리기대회·글짓기대회·노방전도

〈자체 평가〉

- 특활시간에 전도나가는 것은 좋다.
- 성경학교 기간은 4일 이상이 좋다.
- 새신자반은 별도로 편성하여 가르친 것은 좋았다.
- 실시기간을 유·초등부가 여유있다.

□ 중 · 고등부

행사명/제○회 중·고등부 동기 학생부흥회

실시기간/1976년 2월 26일~28일

실시장소/대예배실

주 제/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딤후 3:14)

참가인원 <중등부> 학생: 268명 <고등부> 학생: 268명 ※일평균출석

주요내용/부흥집회(강사—한제호 목사)·웃집회·철야기도회

〈자체 평가〉

- 학생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복음의 수호자로」 또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게되었다.
- 웃집회시의 간절한 찬송은 「꼭조 있는 기도」인 것을 체험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다.
- 나이·저적수준·신앙의 깊이 등의 차이로 볼 때 다음에는 꼭 중·고등부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 저녁에만 집회를 가진 부흥회로 앞으로는 새벽기도회·특강·성경공부 등으로 수양회로 그 성격을 전환시켰으면 좋겠다.

□ 대 학 부

행사명/제5회 동기수양회

실시기간/1976년 1월 26일~29일

실시장소/대학부실

주 제/새벽이슬같은 청년

참가인원/학생: 85명 ※일평균출석

주요내용/예배(강사—정상우 목사)·특강·산상에배

〈자체 평가〉

- 수양회 마지막 순서로 가진 「예수님 잔치」순서는 종합적이어서 좋았다.
- 외부장소에서 실시할 때보다 학생들의 열의가 적은 것 같다.
- 패널토의는 준비가 미흡하여 충분한 토의를 할 수 없어 아쉬웠다. *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게 되지 못한다는게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 적어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 가자는 의도에서 우리는 전교.....
인들을 향해 위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충현」 편집실—

※ 추천하고 싶은 책 ※

어려움에서 신앙으로

—하박국서 강해—

마틴 로이드—존스 지음 영 음 사 발행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 엮음 4.6판 82면 값280원
 오늘날 신앙의 세계에서 불안의 문제중의 하나는 역사의 문제이다. 성경은 깊은 역사철학 혹은 특수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은 세계의 역사의 문제를 특별히 재미있는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

현대인들은 전쟁의 두려움과 위기의 살육에서 방황하면서 어디로 나가야 할 길을 모르는 가운데 괴

로워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나갈 길을 선지자 하박국은 그의 메시지를 통하여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의 메시지는 앞으로의 시대를 궁극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꼭 필요한 말씀이 되고 있다. 런던 웨스턴스 트 교회 목사였던 저자 로이드—존스씨는 성경을 통해 두려움 속에 질려 있는 인류가 신앙으로 나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신자들이 이 땅위에서 취해야 할 자세를 자신있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6장에서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방법”을 설명하므로 두려움에 가득찬 교회들 위하여 더욱 놀라운 격려를 주는데는 이 땅위에서 있는 모든 교회에 결실히 필요한 양서라 하겠다.

“두려움에서 신앙으로”란 표제와 같이 두려움 속에 우리들이 신앙으로 건진하는 귀한 축진제가 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정관일 목사(부목사·청년부지도)

영원히 충현의 식구인가 봅니다

뵈고 싶은 집사님께.

그간도 안녕하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벌써 그곳을 떠난지도 어언 2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대해 주시던 집사님과 성가대의 모든 분위기가 더욱 더욱 느껴집니다.

감사의 여유도 없는 바쁜 나날입니다. 바쁘지 않을 수 없는 이곳의 생활구조가 당연한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꽤 짜증스럽기도 합니다. 요며칠간은 1년에 처음으로 비가 며칠간 내렸습니다. 이럴 때면, 더욱 서울이 생각나고 충현교회가 생각나고 성가대가 그리워집니다. 제가 유난히 그곳 성가대 생각이 나서 눈을 감고 생각하다 보면 항상 연습시간이었어요. 아무리 그곳 날씨가 이곳 날씨와 다르고 서차가 있다고 해도 이처럼 마음이 끌리는 것을 보면 전 영원히 그곳 식구인가 봅니다. 지금도 그곳은 토요일 오후 7시 30분이겠으니 한창 연습시간이겠군요. 생각지도 않다가 연습시간엔 꼭 그곳 성가대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읍니다. 어려운 일 중에서도 특히나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은 큰 놀람과 함께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한 일이었읍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가을, 10월 29일 밤이었읍니다.

12시가 넘도록 학교숙제와 연습, 또한 시험공부를 하느라고 2층 저의 방에서 열중하고 있었읍니다. 방에 연기가 자욱한 것도 모르고 열중하다 갑자기 발견한 때는 이미 늦었읍니다. 아랫층에서 불이 났던 것이지요. 현관으로 나갈 수가 없어 2층의 조그마한 창문을 통하여 뛰어내리고 말았읍니다.

병원의 진단은 어마 어마한 것이었읍니다. 무릎 이하의 뼈는 으스러지고, 허리가 부러졌으며 왼쪽발을 다쳐 평상의 3배가 되도록 부어올랐읍니다. 엑스레이(X-Ray)를 60여번이나 찍으며 하는 말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부은 것이 다 빠진 6일 후에 하고, 기브스를 하고 병원에 계속해서 6달을 입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읍니다. 저는 깊은 절망과 낙담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깨달았읍니다. 절망과 낙담 대신에 새로운 감사를 느끼게 되었읍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6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할 전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읍니다. 이곳에 보내주신 것도, 또한 이처럼 환난을 당하게 된 것도, 또한 환난 중에 생명을 진저주시는 것도 수술을 하는 것도 기브스를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한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어서 속히 교회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가대의 저의 자리에 앉아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드리며 전 확신할 수 있었읍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저의 마음엔 말할 수 없

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났읍니다.

수술할 날 아침 조목사님께서 오셔서 또한 간절히 기도를 해 주셨읍니다. 전 지난 날에 느꼈던 그 확신과 평안이 마음속에서 넘쳐났읍니다. 헌데 이상한 일은 그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고 통증이 심했던 것이 언젠지 모르게 사라져 버렸읍니다. 전 자유롭게 일어나 앉아 있었읍니다. 발의 통증도 사라졌고 통통 부어올랐던 것도 다 가라앉았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와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가실 지 5분도 못되어 의사가 막 달려 오더니 「당신 이제 수술 안 해도 되니까 오늘 퇴원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술한다고 하고서 진찰도 안하고 퇴원을 하라니 어떤 일입니까?」 제가 의아해서 물으니 그 물음에 의사가 깜짝 놀라며, 제가 일어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더욱 놀라하면서 기뻐하더군요.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놀랄 일이고 주님의 이룩한 이적이 아무 믿음도 없는 저에게 몸소 체험으로 느끼게 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또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엔 자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건강에 대한 감사를 드려본 적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을 느꼈읍니다.

저의 기쁨은 무엇으로도 비길 수가 없읍니다. 이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저의 몸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생활과 좀 더 보람된 일을 하는 데 사용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할 날짜에 「할렐루야!」를 부르며 퇴원을 했읍니다.

집사님! 성가대원들에게 안부전해 주세요.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다고요. 벌써 2년째 성가대 임명에서 빠지게 되었군요, 10년이 지나더라도 손 꼭고 있을 거예요. 명예대원이라도, 임명하는게 꼭 고고 싶은마음입니다. 이곳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양쪽을 다 못하는 욕심이 너무 크나 봅니다.

집사님, 어느덧 2년이 하루같읍니다. 주 은총중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또 소식 드리겠습니다.

김 미 립 올림

※ 김미림씨는 우리교회 제일성가대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던 중 지난 '74년 7월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현재 로스앤젤레스서 라성제일교회(조진일 목사 시무)의 성가대원으로 수고하고 있다.

해외에 계신 「충현」의 식구들에게

「월간충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해외의 활동 중 느끼시고 보셨을 중 함께 나누어 유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원고지 매수 제한 없이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월간 충현」에 소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닫혀진 일본선교의 전망

홍 종 만 목사

<선교사후보·교육위원장>

망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의 사명에 우리 교회가 응답하여 1968년에 해외복음선교회를 조직하고 1971년 9월 9일에는 인도네시아 선교에 첫발을 내딛어 서만수 선교사 내외분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파송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이어서 우리 교회가 제2선교지로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교포 선교를 목적으로 1974년부터 이에 착수하여 준비중에 있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열리지 않을 뿐 아니라 여태껏 계획하여 추진하던 일본 선교의 계획이 풀기 어려운 암초에 부딪혔다.

이제 우리 은 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여 오던 일이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 할 것인지를 일본 선교를 위한 선교사 후보자로 지명되어 준비하던 본인으로서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1974년 초부터 구체적으로 착수하여 선교사를 인선함과 동시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일본에 있는 제일대한기독교 총회의 초청을 받아서 구체화되어 일본 하관에 있는 한인교회를 임지로 결정, 당초에는 1975년 3월에 임지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권 수속도 여의하게 다 끝나 일본에 비자 신청을 냈다. 종전에 예에 비추어 예정일자로 되리라 생각했으나 뜻밖에도 1975년 2월 24일자 일본 의무성에서 비자(입국)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분명치가 않았다.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6개월 후에야 되므로 그해 9월경에 다시 입국신청을 냈다. 일본 기독교 총회의 소식으로 이번에는 다시 내린 다 되도록 절차를 밟아 놓았으니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2차로 신청한 결과가 1976년 1월에 나왔는데 또 안된다는 기각 조치였다. 기각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전문에 의하여 기독교국이 아닌 한국으로부터 선교사로 입국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여하튼 한국인의 일본 입국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를 초청하는 공식 초청자인 일본의 대한 기독교 총회는 범교단적인 단체인데 이들은 어떠한 면으로나 한국 보수교단의 입국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결국 본인의 선교사로서 일본 입국의 길은 일단 끊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로서 대일본선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현재 선무진에서는 신중히 검토하며 연구중에 있다. 그 동안 이를 위하여 준비하던 본인으로서 몇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다.

1. 일본 선교는 포기할 수 없다

일본에는 공식 입국자가 약 60만이며 비공식 입국자도 적잖다고 한다. 이들을 위한 한인교회가 있기는 하나 숫자가 불과 30여개처일 뿐 아니라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며 또 이들의 신앙사상은 거의가 신신학에 물들어 있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사상에 젖어 있는 지도자 밑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들중 젊은층은 대부분 보수신앙을 반대하고 중년 이상 노년 층에서는 본국의 뜨거운 보수신앙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의 한국교회의 전망은 이래로 두면 이제 1세대들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교회는 더 약해지고 또 완전히 자유주의의 신앙화 해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주고 신앙의 불을 부쳐 주어야 할 필요성은 너무나 긴급하다. 또 국가적인 면에서 볼 때 이들은 같은 지역, 같은 집에서 사는 식구중에도 조총련의 선전에 물들어 있는 긴장한 상태에 있는터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만이 이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2. 일본 선교 새방안은 무엇일까?

1) 평신도 선교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본교회 교우나 또는 앞으로 유학 아니면 사업차 일본에 가는 사람에게 가능한 훈련을 시키거나 행정적인 유대를 가지고 선교운동을 전개시키는 것이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런 류의 직업인을 파송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2) 제일교회 교역자를 통한 선교

현재 일본에서 목회를 하는 교포 교역자 중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른 신앙을 가진 분과 유대를 맺어 선교운동을 전개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일본에서 이러한 인물을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3) 교포 선교사를 양성하여 파송

일본에서 일반교육을 받은 교포중에서 입신하여 한국에서 신학교육을 받게 하고 선교훈련을 시켜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 경험을 쌓은 후 선교사로 뒤를 밀어주는 일이다.

이상과 같은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하여 선교의 길을 여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도하였던 방법은 일본의 한국 정책이 바뀌지 않는한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일본보다 더한 반기독교국가나 심지어는 공산국에까지 선교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터에 일차로 장애에 부딪혔지만 일본선교의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된다. 아무쪼록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는 중에 일본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 물자 절약 캠페인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교회의 모든 물자를 아껴쓰시다—

□ 한마리의 어린양이 문제였습니다. 그 한마리의 어린양이 없었더라면 언제까지나 99마리일 뿐, 100마리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우리는 흔히 열·백·천 하면 굉장하게 생각하며 만족해 하지만 『하나』라고 하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때는 “하나쯤이야, 뭐…….” 하고는 아예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 그러나 열·백·천 등 모두가 처음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부터 시작되었고 하나 하나가 모여서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하나』는 가장 소중한 것이며 『하나』는 곧 모든 것의 『가장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나 또는 한번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큰 것을 감당할 수 있어도, 『하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경히 여기는 사람은 큰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결심합시다! 그리고 실천합시다!

1. 이제부터 우리는 종이 한장·볼펜 하나·전등 하나 등 교회의 크고 작은 물자를 사용함에 있어 『하나』를 아껴쓰시다.

2. 이제부터 우리는 의자·책상·마이크·피아노 등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시설물과 비품을 마치 내 집 물건처럼 아끼고 조심해서 사용합시다.

3.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의 정성어린 헌금으로 마련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물질도 효과적으로 쓰고 정성스럽게 관리하여 선한 청지기 가 됩시다.

이러한 뜻을 항상 되새기기 위하여 교회의 모든 유인물·비품·시설 등에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진 아래의 마크를 꼭 표시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Nearer, My God, to Thee
(새 358; 개 502; 합 162)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화로 1912년 4월 14일 주일 밤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Titanic)호가 북극에서 흘러 내려온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할 찰라였다. 이 때 영국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기사도(騎士道)를 발휘하여 몇 척의 구명정에 705명의 부녀자와 어린이들만 구조하고 희망을 잃은 1635명의 생명들은 갑판 위에 올라와 침몰해가는 배와 더불어 운명의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악대 지휘자 하트리(Wallace Hartley)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을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갑판의 1635명은 배가 물 속으로 선체를 감출 때까지 목이 메어 터지도록 불렀다. 그 파도는 배와 1635명의 생명을 삼키었으나 그들의 찬송과 영혼은 삼키지를 못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로 갔던 것이다. 1837년 어느 날 밤 우뢰같은 박수갈채 속에 막이 내리고 아담스(Sarah F. Adams)는 런던 리치몬드 극장의 무대를 내려갔다. 이 날은 이 아름다운 여배우가 맥베드 부인 역으로 마지막 출연을 한 밤이었다. 5세 때 모친이 폐결핵으로 죽고 언니가 병상에 누웠는데 이제는 그녀마저 32세의 나이로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려 한 것이다.

그녀는 무대생활을 떠나 서정시와 극시, 또는 찬송시를 쓰는 데로 방향을 바꾸었다. 찬송시를 위해 성경을 열심히 탐독하던 1840년의 어느 날 창세기를 읽다가 28:10-22의 벨엘의 야곱 이야기에 그만 사로잡히게 되었다. 고독하였던 야곱이 그에게 같이 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자기가 걸어가야 하는 앞날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야곱이 베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간 심정이 되어 그것을 시로 읊었던 것이다. 이 찬송시를 발표하고 7년 있다가 아담스 여사는 세상을 떠났다.

야곱에게 같이 하신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하려던 아담스에게 같이 하신 것이 틀림 없었다. 이 찬송이 많은 성도들에게 큰 감화를 주었고 오늘날에도 옛 성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받고 있는가! 이처럼 이 찬송이 옛 성도와 오늘의 성도, 그리고 또한 미래의 성도들과 영원토록 은혜의 금사슬로 묶어놓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이다.

1700년 2월 21일

진리가 무엇이나?

오 태 용

어느 고등학교의 시험에 이러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한다.

다음 명제가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라.
문: 진리는 변한다()

이런게 어떻게 시험문제가 될 수 있느냐고 항의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수험학생은 다만 자기 나름대로 진리의 개념을 정리하여 ○×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 자기의 인격적 결단의 표시일진대 그에 따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초래한다. 우선 현실적으로는 급락(及落)이 판가름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대한 것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여기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무릇 이 세상은 위의 명제 하나로 손쉽게 가를 수 있다. 진리를 가변성으로 보는 사람과 불변성으로 보는 사람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등이 근본부터 길을 달리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하느냐의 문제 이전에 먼저 「진리」가 무엇이나?는 물음이다. 오늘날 일류 대학, 최고지성을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저 안다고 해야 교과서에서 배운 합리적 진리, 과학적 진리에 그치는 정도이다.

일찌기 빌라도는 총독의 권좌에 있으면서도 죄수(?)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나(요 18:38)고 물었다. 한 마디로 진리 바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면전에 두고서도, 아니 그와 이야기하면서 그는 자기 체면에 어울리지 않게 무지를 드러내었던 것이다.

며칠전에도 어떤 불신 청년과 대화의 기회를 가졌었는데 도무저 진리에 대해 이해를 못한다. 한 마디로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러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득실대는지 헤아리지 못한다.

미국의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는 「가져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이라는 시에서 숲 속에 두 갈래 길 있어
인적이 드문 길 택하였더니
그것으로 만사가 전혀 달라졌었네
라고 노래했다. 창세부터 갈라져 있는 이 두 길—모두 다 갈 수는 없는—에서 어느 길을 택하고 또 택하게 할 것인가?

구역공과

◇ 4월 공과 ◇

제7장 교회론

성경/엡 2:19-22; 5:23-27; 4:11-16

찬송/새 532(합 524)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밀사옵니다.

1.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라고 할 때에 예배드리는 장소(건물)를 말할 때도 있고 예배드리는 회중을 말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교파나 조직(구교에서는 교황이하 추기경 신부들을 교회라 부름)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성도의 교제(fellowship)를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보면 엑크레시아라고 했는데 그 뜻은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교회의 시작을 보면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7장 참조)로 나누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란 “복음을 믿는 현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며 눈에 안 보이는 교회란 “선택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한다.

2. 거룩한 공회란?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구별된(separated)”이란 뜻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구별된 건물(성전), 물건(성물), 사람(성도)들을 뜻한다. 그리고 “공회”란 “보편적교회” 즉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르켜 공회라고 부른다. 따라서 교회는 통일성(unity)을 가진다(엡 4:13).

3. 교회의 기능

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딤후 3:15).

②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고전 12:12-17; 엡 1:22-23; 4:1-16; 골 1:24).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일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은 곧 전도·교육·봉사이다.

③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엡 2:19; 갈 6:10) 임으로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교단에 참여하나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는다(롬 8:17).

④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성도의 교제).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도의 친교, 또는 교제를 말한다. 이처럼 참

된 교회는 진실된 교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교회의 기능 가운데 친교는 필수적인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행 2:42-47)는 바로 그 모범이 된다.

제8장 속죄론

성경/롬 7:14-15; 요일 1:5-10; 시 32, 51편
찬송/새 428(합 437)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밀사옵나이다.

1. 죄란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죄를 미성숙함으로 인한 실수로 보기도 하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불법이나 불복종을 죄로 본다(참고 롬 1:18-3:23).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말티아(hamartia), 즉 하나님의 뜻에 모자라는 것(소극적 죄)과 거역하는 것(적극적 죄)이 곧 죄이다.

2. 용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즉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그러면 용서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 죄를 도말하는 것(시 51:1)이다. 용서에는 두가지 면이 있다. 첫째는 소극적인 면인데 그것은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이며(시 32:1) 두번째는 보다 적극적인 면인데 우리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시 51:10).

3. 용서의 조건

용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의 행동이다. 이것은 얻을 수도 살 수도 없다. 다음 몇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① 회개: 마 4:17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고 눅 24:47에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했다. 즉 죄 사함의 첫째 조건은 회개이다. 그런데 이 회개란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서 그것은 태도와 생활까지의 변화를 말한다. 이 회개에는 세가지 단계가 있다. 그것은 뉘우침(contrition)과 고백(confession)과 개심(conversion)이다.

② 타인에 대한 용서: 마 6:14-15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했다. 즉 타인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이 용서받는 두번째 길이다.

③ 믿음: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즉 믿음으로 용서받는다. 이에 대하여는 로마서에 특별히 강조되어 있다. 즉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롬 5:1, 26).

④ 예수님의 보혈: 위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담의 피로 더러워진 우리 심장의 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되며 모든 죄가 흰눈처럼 된다는 것이다. 이 놀라운 기적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으로 이루어진다.

※ 이 구역공과는 매월 계속 실리게 됩니다.

구 역 소 식

■ 축하합니다(2월중 결혼)

- 김영희/주일학교 교사—9일, 수도예식장
- 조호현/조희철 집사, 조신애 권사 2남—10일, 충현교회
- 조양란/창신구역—10일, 충현교회
- 정경희/정상우 목사 동생—20일
- 공성훈/이영숙 여사 장남—26일, 충현교회
- 김신희/고동부 교사—28일

■ 2월중 해외 이민가족

- 송명운/송순일 장로 장녀—13일, 미국
- 육옥준/고동부 교사—20일, 미국
- 김광철/사무장로—23일, 미국
- 황오연/27일, 스페인

■ 위로드립니다(2월중 별세)

- 정국진/이민자 집사 부군—10일
- 이운희/방계운 집사 시모—12일
- 배광수/71세, 장충①구역—27일
- 김경숙/18세, 김금순씨 2녀—27일

평신도를 위한

신학 용어 풀이

1. 언약(言約) 또는 계약(Covenant)

「언약」 또는 「계약」이란 구약성경에는 '베릿' 신약성경에는 '디아메케'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조약과 같다. 다른 것이 있다면 언약은 하나님의 단독적 결정이란 사실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는 자의 축복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렘 11:4; 24:7; 30:22; 32:38; 겔 11:20; 14:11; 36:28; 37:23 등)이다.

2. 계약신학(Covenant Theology)

개혁주의 교회의 신학을 계약신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거스틴에게서 출발한다. 성경을 보면 두 계약(또는 언약), 즉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 있다. 행위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가진 것으로써 약속은 생명(또는 영생)이었으며 요구조건은 '완전한 순종'이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어긴 때의 벌은 사망이었다. 이 행위언약은 그 후 노아, 아브라함에게 의하여 계속되었던 것이다.

은혜언약은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언약으로서 조건은 신앙이었으며 약속은 구원(또는 영생)이었으며 실패배인 사망의 벌을 받게 되었다. 현재 우리는 이 새 언약인 은혜의 언약에 매여 있으므로 이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다.

□ 구역장 노트②

구역요원 교육

백성통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장>

해마다 년초에 제직훈련이 있다. 몇차례 훈련을 통해 구역운영에 관한 지식을 터득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훈련보다 앞서 시행되어야 할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 효과 밖에는 바랄 수 없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실시될 「구역요원교육」은 제직훈련의 보충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항구적인 교육과정이 되도록 생각하고 있다.

이같은 「구역요원교육」을 시들려야 할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구역업무가 단순히 구역권찰의 심방과 구역장의 보고로 끝나지는 안된다고 생각되며 더우기 구역원들에 대한 「구역단위의 교육과 훈련」의 핵심이 될 구역장들의 자체 교육과 훈련이 시급한 당면과제라는 데 있다. 물론 「구역요원교육」은 권사·권찰이나 그밖에 구역에서 선발된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지만 그 핵심은 역시 구역장들이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려면 「지도자양성부」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구역일을 돌볼 사람은 반드시 「구역요원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다. 현재의 실정으로 볼 때 87개 구역이나 되는 광범위한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역요원교육」이 시급하고도 불가피하다.

즉 이 「구역요원교육」은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피할 수 없는 ① 교인들의 유동성에 상응한 운영 ② 교인들의 신앙적 자질향상 ③ 확실하게 교인들을 돌아보자는 데 그 뜻이 있다. 또한 이 교육은 일체의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며 심오한 학문적인 이치보다는 실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만일 이런 전제 없이 이 교육을 시도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구역의 모든 일이 정치적으로 편승하기 쉽고 또 파피적으로 교회를 비판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같은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자기 신앙 표현에만 힘쓸 수 있도록 교육방향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이 교육에 있어 성령의 은혜는 항상 강조되어야 하며 성경 진리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구체화시켜 생활의 적용에 있어 정렬적인 사명의식과 냉철한 사명의 함양이라는 두면을 잘 살리지 않으면 안된다.

이 「구역요원교육」의 중요성과 시급성에서 본다면 매주 실시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피교육자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월 1회 120분 수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교과내용은 차후에 언급하겠지만 ① 사명감에 불이 붙도록 기도회를 가지고 ② 성경공부와 ③ 생활적용을 위한 특강 등으로 되어 있다.

공로표창제도 실시

— 본교회 인사관리에 획기적인 처사 —

.....◇ 지난 2월 15에 모인 임시 당회에서는 인사관리에서 획기적.....
.....◇인 거사라고 할 20년 봉직에 대한 공로표창제도를 확정짓고.....
.....◇그 첫 케이스로 김광철 장로부터 적용하였다. ◇.....

오늘날 우리교회가 특히 양적인 면에서 이만큼 성장·발전할 수 있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가 우리 교회와 함께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설립 초기부터 이렇듯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해온 숨은 일꾼들이 적지 않게 있었고 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적인 봉사가 끊임없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현 20년사」에서도 읽게 된다.

당회에서 심의 가결된 공로표창제도는 우리교회에서 정식으로 임명받고 20년간을 별 과오없이 일한 분에게는 그 공로를 치하하는 뜻으로 공로패를 만들어 수여한다는 것인데, 이 임명에는 제직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대원, 찬양도 같이 포함된다고 한다. 관리·운영면에서 계속 연구될 이 제도는 상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시무실적이 없을 때를 한하여 해당 연도는 봉직연수에 넣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다.

성경학원 지난 달 개강

— 부쩍 는 지도자 양성부 9기 수강생 —

성경학원이 지난 2월 23일 새해들어 처음 개강하였다. 보통반 60명과 연구반 15명이 수강하게 된 이번 성경학원은 또 지도자양성부를 며칠 앞서(2월 8일) 개강하였는데 수강 중인 제9기는 숫자에 있어서 어느 기(期)보다 많은 셈이라고 전해진다.

교회 일부 인사이동 단행

당회는 김광철 장로의 도미동 교회의 많은 헌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이동이 있었다.

- 해외복음선교회 회장 : 위영환 장로
- 위 선교회 부회장 : 최석주 장로
- 위 선교회 서기 : 한경일 장로
- 장학생 심사위원 : 윤종순 장로, 임광식 장로
- 보전원 교육위원 : 김경일 집사(제일성가대 지휘)
- 고등부 성가대지휘자 : 남궁은 선생(제일성가대 테너솔로)
- 을지로·광의구역 담당에 김기정 장로
- 삼양 1구 구역장에 문태인 집사를 천하고 안차녀 집사를
- 연철 보신—성인구역에 김순실씨, 정능구역에 김준경씨 보임.

김광철 장로 이민차 도미

— 새 임무 계속 지닌 채 —



(김광철 장로)

우리교회에서 해외복음선교회 회장과 금년 전도할 중에 새로운 출발이라 할 전도위원회의 위원장직등 중책을 맡아 봉직해 온 김광철 장로가 2월 23일 이민차 출국,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갔다. 본교회 22년 봉직으로 공로패를 받았고, 작날 회기까지 총회 회계 등 본교회 교단을 위해서 크고도 어려운 일들을 해온 김장로는 몸은 본교회를 떠났지만, ① 충현교회 미주(美洲) 지교회 설립위원과 ② 충현교회해외복음선교회 미주지부장이란 부서의 임원까지 위촉받았다.

김포공항에서 본 「월간 충현」 기자와 만난 김장로는 인도네시아에 선교사 한가정 더 파송하는 일을 매듭짓지 못하고 또 일본선교관계도 계속 난항 미진한 채 출발하게 되어 제일 아쉽고, 본교회 교우들에게는 진리를 계속 파수하는 등대에 세운 충현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 당회장 김창인 목사— 다시 총회 선교부장예

지난 해 9월 제60회 총회의 속회가 지난 2월 9일 총회신학대학에서 열렸는데 각부부서조직에서 우리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

인 김창인 목사가 선교부장으로 선임되어 계속 본교단의 선교정책을 관장하게 되었다.

당회장 김목사는 인도네시아 현지선교회의 선교관 개관 등 선교지를 돌아보고 선교관계 세계지도자들과 협의하기 위해 초여름에 출국하게 될 것 같다.

— 윤영탁 전도사 —

총회신학 교수로 발탁

우리교회 윤영탁 전도사(사진)는 지난 달 29일 총회신학대학 교수인사 이동에서 교수로 임용되



(윤영탁 교수)

었다. 총신 연 구원에서 구약학을 맡고 신학부장의 중책을 지냈던 윤교수는 일찌기 연세대 철학과를 나와, 총신을 졸업하고, 미국의 카바넷신학교를 거쳐 드립시대학에서 구약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건너가 히브리대학에서 구약학을 계속 연구하고, 재작년 귀국하였다.

그간에도 총신에 강사로 수고하며 본 교회에서 성경학원과 대학부 청년부에서 많은 강의를 해 온 윤교수는 이취자 사모님과 사이에 딸 에스더(영아부에 출석중)가 자라고 있다.

— 우리교회 —

「기독신보」에 소개돼

우리 충현교회는 며칠전, 기독교신보(1976. 3. 6자) 「교회탐방」란에 「해외선교에 지중하는 충현교회」란 제목 아래 설립 22여년된 오늘 본 교회의 발전상이 크게 보도되었다.

성가부 부흥회 곧 열어

—18일부터 3일간, 성경학원 협조로—

새해를 맞아 대원 대폭 증가, 연초(年初) 단기수련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정병과 그리스도인의 증인을 다짐하면서 의욕적인 출발을 한 성가부(부장:홍중섭 장로)는 오케스트라 조직 등 급변의 큰 사업들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전 성가대원의 신앙부흥을 목표로 하여 부흥회를 마련한다. 성경학원의 협조로 오는 18-20일까지 3일간(저녁 7시 30분부터) 유년부실에서 열리게 될 이 모임의 강사에는 「성경공부」에 김재창, 목사(노년부지도), 「음악공부」에는 김광식·김정일·김중석·권금진 등 여러분이 맡게 된다.

한편 부흥회가 끝난 다음 날인 주일(21일) 저녁에는 정상우 목사를 강사로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제일성가대·여성성가대·대학부 성가대의 합동 찬양이 있으며, 그 예배의 모든 순서는 대원들에 의해 진행된다.

성가부는 4월 11일 고난주일 음악예배를 계획하고 「십자가상의 7인」(모로아 작)을 김정일 집사 지휘와 천혜숙 선생 반주로 준비단계에 들어갔으며, 4월 18일 부활주일 음악예배(김광식 지휘·서은숙 반주 및 김중석 지휘·이승순 반주)도 가지려 하고 있다.

구역요원 교육 실시

—항구적인 교육과정으로서—

해마다 연초에 단기수련회를 통해 구역장 및 구역 권찰들을 교육해 온 우리교회에서는 보다 책임적인 구역요원의 교육을 위하여 이달 12일 동·서부 지역부터 「구역요원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구역요원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항구적인 교육과정이 되게 한 이프로그램에 의하여 구역요원은 누구나 월 1회 두시간씩 구역요원공부를 하게 되어 있다.

영아부 첫번째 계절학교

—지난 달, 어머니·유아 교육 위해—

우리교회에서 유아(5세까지)와 이들 어머니들의 교육을 맡은 영아부에서는 교회의 협조 하에 제 1회 계절학교를 2월 24-26일(3일간) 매일 10-12시까지 영아부실과 유치부실에서 가졌다.

「우리는 복음의 그릇」이란 주제 아래 매일 200여명이 모인 계절학교에는 강사로 임승원 목사(교사의 첫 발행점·편집인, 성광교회 시무)와 연세대의 이길상 교수 및 산부인과의 강주심 여의사가 수고했으며, 영아부 전 교사들에게 의해 진행되었다. 영아부·유치부 어머니들이 강의를 받는 한쪽에서는 주로 영아부 어린이들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배우며 즐거워하였다.

그런데 작년 한햇동안 어머니 교육을 위해 목요집회를 운영, 관리해 온 영아부는 급변하는 달리 계절학교를 두 차례 열어 유아를 가진 어머니들의 교육과 영아부 어린이들이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나 겨울어린이 성경학교를 모방하여 교육하도록 짜고 있었다.

—1976년 우리교회 성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토막 소식

- *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회가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본당에서 열렸다.
- * 각부 지회를 위한 「회계 강습회」가 2월 23일 모였다(강사:윤중순 장로, 위영환 장로).
- * 수양관 건축부지로 토지 4,000평을 더 구입하기로 했다.
- * 현행 주보가 4월 첫주일부터 재제·지질 등이 바뀌게 된다.
- * 대학부와 차례결연한 공군사관학교 신우회회원들에게 가족성경한권씩을 기증하였다.
- * 본교회 장학생으로 이준교·이승근·김중석·김일동·윤형철·김영희 등 여섯명이 선발되었다.
- * 어린이세신자부에서는 2월 28일 자제 교사연수회를 열어 효과적 심방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지난 26일(금) 영아부는 찬송바로 부르기과 반별 친목을 위해 반별찬송 부르기대회를 가졌다.
- * 유치부 반별사도신경외우기대회는 3월 7일 열려 열대 13반과 꽃 2반이 영예의 1등을 차지했다.
- * 유·초등부에서는 각기 2월 22일 성가 경연대회를 각각 반별 대항으로 실시하였다.
- * 중등부는 시청각교육을 통한 신앙생활향상을 위해 오는 4월 17일 성화 「순교」를 상영한다.
- * 고등부는 2월 29일 이정웅 선생의 「관민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들었다.
- * 대학부 제자훈련(D.T.C.)이 지난 달 24-27일간 진행되었다.
- * 대학부는 오는 27일 조별성가경연대회가 있게 된다.
- * 청년부는 2월 19일부터 이틀간 평신도를 위한 견도훈련을 받았다.
- * 청년부는 4월 25일 「기독신업인의 신앙관」에 대해 특강시간을 마련한다.
- * 노년부는 처음으로 반별찬송가 잘부르기대회를 3월 7일에 열었다.
- * 땅끝까지회는 지난 달 임원 개선을 했다. 회장에 박행렬, 총무에 노경모.

■ 교회의 모든 물자를
아껴쓰시다 ■

편견하고 나서

기자석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왜 쓰는가?」하는 물어서는 안될 것 같은 질문을 모 월간문학지가 물어보았다.

「글을 쓰는 것은 인간의 행위중에 가장 위대한 행위며 하나의 소우주를 창조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진실을 걸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는 숙명적 방법론이기도 하다. 「집중하는 신앙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사회개혁의 표현으로서. 「질서획득을 위한 발작으로서. 「삶의 강력한 확인이기도 하다. 등으로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쓴다는 것」은 삶의 확인이며 삶의 가장 큰 의미이며 그것은 하나의 종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쓴다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고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허무감을 해결하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왜 사는가?」하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들처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다시한번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허긴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해도 믿음이 생활화하지 못했다면 이와같은 질문에 확신하며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현대의 가장 큰 위기중에 하나인 인간의 소외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갈수록 미분화되고 조직화되어 가는 사회구조는 이에 더욱 두터운 장벽을 쌓고 있다.

교회에도 거센 세속화의 바람이 불어 과감하게 혹은 조심스럽게 사회와 융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어느 것이 옳으나 하는 것은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역시 「교회는 교회다운 방법」이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좀 구태의연하거나 보수적인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플러스 알파」의 힘을 믿는다면 이 구세대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새롭고 명확한 이야기인가에 수긍이 갈 것이다.

모든 문제에서 「교회는 교회다운 방법」이 적용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이다

〈형〉

*...성전건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벽돌 한장, 시멘트 한 포대라도 참여하겠다는 높은 참여 의식은 우리는 볼 수가 있다. 한두 사람이 많은 것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5,000의 교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교회건축에 일한다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교인들은 교회건축에 대해 어느정도 마음자세와 참여도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교회건축 참여방법들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 보았다.

설문에 응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

*...당회장 김창인목사님이 지난 해에 이어 총회 선교부장으로 다시 피선되었으며 윤영택전도사님이 총회신학대학의 신학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우리 총회의 모든 식구가 다함께 축하드리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도록 우리 모두 기도드리자. 〈형〉

《표지 설명》

「넘쳐 감사합니다」가 이제 「넘치니 어찌하렵니까」로 바뀐 지가 오랜 일이다. 18명으로 시작했던 우리교회가 이제 5,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다. 부흥·발전에 따른 교회확장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지가 벌써 오래전 일. 대예배실, 각부 주일학교 등, 모든 기관이 차고 넘쳐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올해는 성전건축의 주춧돌을 놓아야겠다는 확실한 열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넘쳐나는 교회의 모습을 담았다. 「어서 빨리 교회를 짓자!」라는 마음을 강요하면서.

월간 「총현」 3월호·통권제 27호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위 영 환
주간/신 성 중
편집국장/조 선 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 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6년 3월 14일 발행

□ 집 회 안 내 □

구분	집 회 명	집 회 시 간	강 사
예배	대 예 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20분 3부: 오전 11시 50분	김창인 목사
	찬 양 예 배	매주일 저녁 7시 30분	
	삼 일 예 배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김창인 목사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배	특 별 집 회	매주일 오후 3시	
주	새·영·유치부	매주일 오전 9시	정소영 전도사 정연희 전도사
	유·초 등 부	매주일 오전 9시 매주일 오후 5시 수요일 오후 6시	이승근 전도사 김태현 전도사
	중 등 부	매주일 오전 9시 매주일 오후 5시 토요일 오후 5시	윤형철 전도사
	고 등 부	매주일 오전 10시 20분 매주일 오후 5시 토요일 오후 5시	이연호 전도사
학	대 학 부	매주일 낮 12시	신성중 목사
	청 년 부	매주일 오전 10시 50분 토요일 오후 7시	정관일 목사
	노·장 년 부	매주일 오전 10시 50분	노년부: 김재창 목사 장년부: 김종택 목사
성경학원	새 신 자 반	매주일 오전 11시 50분	정기성 목사
	성 경 학 원	월·화·수·목 오후 7시	
	지도자양성부	매주일 낮 12시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 뜻깊은 기미운동 기념 3·1절을 앞두고 본교회에서는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회」가 2월 29~3월 3일(4일간) 있었다. 강사로부터 기도제목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는 교우들!



⇒ 중·고등부 「학생 신앙부흥회」가 끝난 다음 날인 2월 29일 중등부실에서는 열띤 성경퀴즈대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성경 읽기 권장의 하나로 마련된 그 대회에는 200여명이 지켜보는 중에 94명이 출연했다.

⇒ 2월 29일 오후, 청년부실에서는 홍치모 교수의 「19세기 영·미 부흥운동의 배경」에 대한 강연이 있었는데 600여명의 청년회원들이 귀 기울이고 있었다.



실로암 못가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로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서
셨던 옛 박석을 깬 돌 위
에 있는 현대의 꽃과 가시
면류관